

로버트 야브러 박사, 요한서

2A 세션 - 요한 1 서, 2 서, 3 서의 신학적 주제

로버트 야브러 박사가 요한 서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균형"에 대해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2A 세션으로, 요한일서, 이서, 삼서의 신학적 주제들을

다룹니다. 요한 서신 시리즈의 두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균형"입니다.

요한 1서에 대한 해설을 찾고 있다면 5강으로 가세요. 요한 3서에 대한 해설을 찾고 있다면 3강으로 가세요. 요한 2서에 대한 해설을 찾고 있다면 4강으로 가세요.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오는 신학적 주제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요한 서신을 볼 때 어떤 틀을 가져야 하는지 감을 잡고 싶습니다.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밝히거나 설명하는 주제나 사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 아들, 성령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관점에서 인간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사상이나 주제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계시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와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배우게 됩니다.

요한 서신에 담긴 신학적 주제를 인식하는 데 전문적인 방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인간, 죄, 구원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직관적으로 주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구원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은 전문적인 훈련이나 교육 없이도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 강의들을 시청하고 있다면, 아마 더 높은 수준의 이해에 도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것임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섬김이나 사역을 뜻하는 단어는 '디아코니아'이며,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디아코니아 사역을 위해 훈련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도, 목사, 교사와 같은 지도자들을 교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디아코니아 사역에 준비시키셨습니다. 따라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면, 성경과 요한 서신에 담긴 신학적 주제들을 피상적인 이해 이상의 깊이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신서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관점을 통해 이 서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제가 생각해 낸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이 편지들을 다루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 질문은 박해받는 지역의 한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단으로 이 편지들을 주로 온라인에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이는 것은 매우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저에게 "요한의 편지에 나오는 신학적 주제들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요한은 신앙을 위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나 신앙 고백, 또는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신앙을 위해 죽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 흘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말했던 의미는, 그들은 부유한 지역이나 평화로운 지역에서 종교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을 곳이지요. 그들의 종교는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집단이 있는데, 이 질문은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요한의 서신은 바로 그런 집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용기, 충성, 그리고 희생을 추구합니다.

동시에, 요한의 배경과 우리의 배경에서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요구를 하는 피 흘림이 없는 종교에 빠져 허우적거리려는 유혹에 직면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요구된다면 차라리 목숨을 내놓을 만큼 열심이나 헌신이 부족합니다. 요한은 연약하거나 거짓된 신자들에게 경고하고, 값비싸지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진리로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즉, 우리의 이기심과 세상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함을 위해 희생하는 삶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이 질문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성경 전체 와 마찬가지로 요한1서와 요한3서가 성령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압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온전히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백성이 가장 어두운 시련을 겪을 때

그들을 붙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를 인용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시편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조차도 그분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을 때, 제자들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사실이며, 때로는 자기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줍니다. 제가 요한에게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삶 속의 죄와 어둠에 대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목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염려합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둠 속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도 박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피 없는 종교를 묘사합니다. 요한이 요한 일서 4장에서 경고한 바를 따르는 그들 에게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 영은 너희가 오리라고 들었거늘 지금 벌써 세상에 있습니다(요일 4:3). 요한은 자신의 고백의 진실성을 내세우고 어둠 속을 걷는 사람들을 염려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좋아해서든, 아니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서든 말입니다. 제가 요한이 이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요한이 글을 쓰는 동안 고통의 트라우마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밧모 섬에서 글을 쓰고 있거나, 나중에 밧모 섬에서 글을 쓸 것이지만, 자신의 순교는 아닙니다. 체포와 투옥에 대해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트라우마를 목격했고, 그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헌신으로 인해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트라우마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하셨을 때, 그분의 몸통에 창이 꽂히는 것을 목격하셨을 때의 트라우마를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군인 중 한 명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느니라.

이건 존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걸 봤어." 그의 증언은 사실이고, 그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여러분도 믿을 수 있다고요. 혹시 누군가 죽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신체적 폭력을 겪어보시고 사람들이 서로 때릴 때 아드레날린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돌멩이를 던지는 경우도 있고, 뭔가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피가 흐르거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신음하거나, 울거나, 쓰러지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절대 잊지 못할 일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낭만적으로 여기기 쉽죠. 성경을 바탕으로 TV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는데, 팬츠를 수도 있지만, TV는 상상의 매체예요.

앉아서 영화와 배우들을 지켜봅니다. 실제 상황이 연출되는 걸 보는 것도, 꽤 생생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상황을 통제하는 건 당신입니다. 원하면 일어나서 팝콘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끝 수도 있죠.

예수님이 배반당하시던 날 밤, 재판관을 받으시던 날, 그리고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통제 불능이었고,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는 일들. 특히 제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전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쏟아졌고, 마치 내리막길을 달리는 차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빌라도가 "보세요, 저는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놓아주자"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세력이 작용했고, 그들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시신은 병사들에 의해 창으로 찔려 개나 고깃덩어리처럼 취급당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역전되어 그분이 끔찍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충격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체포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한 남자의 귀가 잘렸다고 말씀하는데, 이 극적인 순간,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요한과 다른 사람들을 체포되지 않도록 구해 주십니다. 군인들이 나타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그라고 너희에게 말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놓아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이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해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직접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밤의 어둠 속에서 횃불과 온갖 무기를 든 군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은 모든 사람을 체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이 쫓는 사람은 바로 나야. 날 데려가서 이 남자들을 풀어줘."라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렇게 해냅니다. 그게 바로 트라우마죠. 체포, 투옥, 구타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교회 초창기,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요한은 체포되어 투옥된 사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그들은 천사에 의해 풀려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을 죽이려 했던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그들은 풀려나기 전에 매를 맞았습니다(행 5:40-42). 이처럼 요한은 충실한 복음 전파를 위해 체포, 육체적 고통,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느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트라우마였습니다. 존의 형인 제임스, 피터, 제임스, 그리고 존의 트라우마도 있죠. 존과 제임스는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초기 교회에서 두 번째로 알려진 순교자인데, 첫 번째는 스테반입니다. 야고보는 체포되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은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잔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맨 앞줄에 있었는데, 아마 그냥 잡혔을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에는 누구를 잡았을까요? 요한을 잡았을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기억하시죠? 천사가 그의 감방에 들어와 일어나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으로 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어준 하녀가 베드로인 것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나타나자 그들은 베드로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었죠. 존은 이 모든 일을 겪고 있고, 그의 형은 목이 잘렸고, 피터는 간신히 탈출했고, 제 생각에는, 존이 다음 차례였을지도 몰라요. 존이 겪은 또 다른 트라우마가 있어요.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복형제 야고보와 함께 수년간 목회자로 섬겼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복형제인 야고보가 주된 목회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그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을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순교했고, 여러분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섬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어딘가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리더십 팀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가까워집니다. 특히 나란히 섬기는 직원들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복형제인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는 적어도 1840년대부터 1860년대 초까지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역팀으로 함께한 지 15년, 20년, 어쩌면 25년, 아니 그 이상 되었을 겁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야고보는 성전 벽에 서서 군중에게 연설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매일 성전에 가서 돌계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고 그의 유대인 동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년간 이 사실을 전파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 온 후에도 이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확증했고,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이 그를 벽에서 떨어뜨렸다고 하고,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그가 몽둥이를 든 누군가에게 머리를 맞았다고 합니다. 사실 몽둥이는 세탁조에 옷을 뒤집는 데 쓰는 노였습니다. 그곳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영어로 풀러(fuller)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풀러가 그곳에 있었고, 그들이 제임스를 벽에서 떨어뜨린 후 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이 그곳에 있었든 없었든, 이번 사건에서 살해된 사람은 그의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무덤까지 간직할 또 다른 기억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요한과 야고보는 사마리아인들을 멸하기 위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간과하기 쉽지만,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목 졸라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분노에 차 누군가를 해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요한이 그랬고, 누가복음 9장

5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습니다. 요한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충동을 한두 번 느껴본 적이 있는데, 제정신이 아닌 이상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살인 충동이 마음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십 대 시절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그 일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 기억의 일부가 되고, 우리 인격의 일부가 되는, 트라우마적인 일들입니다.

이 책들은 존이 삶의 힘겨운 면,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생생한 단면을 경험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문제나 사건들도요. 제 강의 각주에 영어권 상담사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책이 실려 있습니다.

베셀, 베셀 반 데르 콜크, 콜크가 쓴 책입니다. 『몸은 점수를 기록한다』라는 책입니다. 『몸은 점수를 기록한다: 트라우마 치유 과정에서의 뇌, 마음, 그리고 몸』입니다.

트라우마는 현실입니다. 우리 몸의 일부죠. 우리에게 가해진 트라우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드레날린을 느끼는 것,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하는 것,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존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 마지막으로 언급할 트라우마는, 그가 얼마나 멀리서 목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860년대 후반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파괴하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요한이 이 사건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든, 로마의 약탈과 파괴가 얼마나 앞서 예루살렘을 떠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 유대인 수천 명이 죽었고, 분명 많은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그들과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이란 유대와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쳐들어와 눈에 띄는 모든 생명체를 죽였을 때, 이 신자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거리에는 피가 흘렀습니다. 요한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군대가 주변에 성벽을 쌓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경고를 기억하고 그 성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약탈은 다른 여러 상황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하는 시점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끊임없이 폭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들이 압도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지금 제가 사는 도시는 토네이도가 몰아치고 블록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다섯 명이 사망했죠.

사람들은 벽돌집 잔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말이죠. 그런 일을 겪어봤다면 정말 충격적인 경험일 겁니다. 토네이도 다음 날, 그 동네에 사시는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은 운전 중이셨는데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70대 노인으로,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어 봤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힘만 봐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온갖 것들이 휩쓸려 사라지고 파괴되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작은 도시에 토네이도가 불어닥쳐 다섯 명이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에서처럼 5만 명 이상이 죽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요한이 시련과 고난, 그리고 죽음의 시대를 거치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 솔직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은 요한의 서신이 정제되고 추상적인 생각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서신은 죽음을 목격하고 끊임없이 체포와 심지어 처형의 위협을 받는 공동체에서 살았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의 공동 목사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믿음이 부족하고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온유하면서도 권위 있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끝부분에 있는 요한일서 5장 12절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을 가졌느니라.” 스테반과 그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그의 동료 목사까지 모두 생명을 가졌습니다. 생명은 그들에게서 빼앗겼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들을 가진 자는 이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신진대사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삶의 질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존은 현실 세계를 잘 이해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공동체 생활의 질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약 17년 동안 아프리카 수단에 수십 번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간 내내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그토록 컸던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수단에서는 종교적 다수파에 의해 늘 체포되고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들 중 살해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회 예는 지난 몇 년 동안 체포되어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복음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무슬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목적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컨퍼런스에는 이슬람에서 태어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슬람이 제공하지 않는 생명력, 활력, 죄 사함의 느낌,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슬람에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구세주에 대한 확신에 비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보다 더 현실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삶은 결국 끝날 것입니다.

이 삶은 덧없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삶은 다가올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를 살펴보면, 존의 실제 삶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그 트라우마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트라우마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자라면서 겪은 트라우마를 알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맞거나 버림받는 것과 같은 특정한 양육 방식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아시고, 복음은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서신에 나오는 신학적 개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경험적 접근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술은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할 때 사실이지만, 성경 저자들은 가장 많이 언급하는 내용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급 빈도는 성경의 초점, 즉 강조점을 시사합니다. 그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할수록, 우리는 그 책에서 그 내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역 목적을 위해, 신학적 주제를 탐구할 때는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 서신의 그리스어 본문을 분석해 보면, 그의 신학적 메시지를 요약하는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을 열두 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요한은 믿음을 위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과 피 흘리지 않는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중요한 단어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단어들을 등장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것들은 요한의 서신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12개의 단어입니다. 하나님, 사랑, 아는 것, 일반적으로 더 경험적인 종류의 아는 것, 머무르거나 남아 있는 것의 개념, 숫자 5, 세상, 우주, 숫자 6, 아들, 대문자 S, 즉 하나님의 아들, 일곱, 사랑, 여덟, 죄, 아홉, 아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단어, oida, 이는 원칙이나 진리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음, 숫자 10, 듣는 것, 숫자 11, 계명, 그리고 숫자 12, 아버지.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차트를 떨어뜨린 것이고, 우리는 이 단어들을 각각 살펴볼 것이고, 충실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요한의 메시지를 살펴볼 것이고, 우리는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요한의 메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하나님부터 시작해 봅시다.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이 62회, 요한이서에는 2회, 요한삼서에는 3회 언급됩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언급은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죽어가는 신자들을 위한 메시지는 영원하신 분께서 악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의 단계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하신 분께서 악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심어주신 말씀을 통해 이를 행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은 모든 악과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히 페이지 위의 단어가 아니라, 페이지나 텍스트 속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달합니다. 우리 마음이 닫혀 있던 것에 열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실재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이고, 청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성경적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둘 다 현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신실한 자들을 위한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악한 자를 이깁니다.

이제 게으른 자들을 위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이 순종으로 표현되지 않는 자들을 위해, 존은 그들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은 피가 없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저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 맞아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자기 안에 지키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방탕한 자들, 곧 말은 같지만 행동은 다른 자들을 향한 그의 메시지입니다.

난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 했어. 존은 사실 더 직설적이야.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그리고 번역은 '누구든'입니다. 좀 더 광범위하죠. 그리스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을 의인화하고, 구상된 인물을 구체적으로, 개인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젠 그저 얼굴도 모르는 평범한 무리가 아니라, 이 글을 읽으면서, 적어도 제가 원문에서 읽었을 때는, “주님, 제가 그런가요?”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젠 게으른 자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뭔가를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신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언어에는 영어로 신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온갖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알라는 기독교 경전에서 야훼,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는 매우 다른 존재입니다. 각 종교에서 최종 권위자로서의 의미는 같지만, 그 성격이 매우 다르고 이 땅에 매우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대조적인 메시지입니다.

신실한 자에게는 영원하신 분이 악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길 수 있고, 실제로 이깁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둘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신성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들, 예를 들어 ‘아들’을 더해 보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단연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요한일서 주석을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종종 벌어지고 있는 싸움, 누가 무엇을 말했는가, 그리고 사회적 상황입니다. 사회적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특히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사에 관해서는, 제가 좋아하는데, 요한일서에 28번, 요한2서에 2번, 요한3서에 1번 나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신자들을 위한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표시는 동료 신자들, 즉 그가 호이 아돌포이(hoi adolphoi), 즉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가장 큰 확신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신자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더 오래된 영어 단어인 '형제들'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좋은 번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남성만의 모임이 아니라, 회중 전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보다 더 큰, 특히 다른 믿는 이들을 향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신자들에게 전하는 그의 메시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만약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다면, 박해받는 지역에서는 이 사랑이 여러분을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정죄받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탄은 분열과 정복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연대와 서로를 향한 관심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 때 말입니다. 지난번 수단에 갔을 때, 보안 요원들이 저를 체포하러 왔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예배에서 성찬식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교회 목사님이 보안 요원들에게 너무 심하게 말을 걸어서 제 비행기가 곧 출발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연시켰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목사님이 지금 보안 요원들과 함께 있고, 체포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저와 제 동료가 공항에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체포된 거였죠.

그리고 공항에서 보안 요원들이 우리를 체포하려 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권을 들여다보던 보안 요원들의 눈을 멀게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 하지만 그 목사님과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120명이 넘는 목회자들과 목회자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공항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손님들이 체포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가 몇 달, 몇 년 동안 겪어야 했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 느슨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안에 거하며, 영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동료 신자들에 대한 우리의 존중이 미지근하거나 부재하다면, 같은 구절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확인이 되는 거죠. 저는 교회에 가는 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교회에 가는 걸 자신의 종교로 여기는 사람들을 봐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종교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의무라는 것을 알기에 갑니다. 어쩌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 돈에 대한 헌신, 에너지에 대한 헌신, 관심에 대한 헌신은 눈에 띄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 내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육체적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회적 접촉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게으른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 서신에서 세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요한일서에 25회 나오는 "기노스코(ginosko) "로, "내가 안다"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종종 더 경험적인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요한이 여기서 죽어가는 신자들을 위해 전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바쳐 그분을 섬기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타적인 사랑의 행위는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의 행위로 이어집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것으로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어떻게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온갖 방법으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발을 씻기심으로 그것을 상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종종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한 하인적 배려와 사랑의 표현 방식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요한은 죽어가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동시에, 여기에는 방종한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사도들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말하는 오류의 영을 따릅니다.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거짓, 오류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은 혈통이 없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가 만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요한과 다른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용어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듣는다는 것, 듣는 것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압니다. 그러므로 방탕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의 메시지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교회 생활에 대한 개념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전하시고 그 이후로 충실하게 이어온 메시지와 어긋나지 않도록 자신의 생각과 교회 생활을 맞춤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60년대 초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야고보, 그리고 이들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베드로와 매우 가까웠던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복형제인 유다입니다.

유다서 3절을 읽어보면, 그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일반 구원,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들어와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는 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성적 부도덕이라고 암시합니다. 유다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오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예수의 추종자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삶과 믿음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단번에 전해진 믿음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게으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도들의 온전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많은 교단들이 지난 100년, 200년 전까지 교회가 믿어왔던 것의 일부를 부인합니다. 서구에서는 기적이나 피의 속죄,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정체성까지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젠더 이론 분야를 선도하는 교회 단체들이 아주, 아주,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낙태는 수 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이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던 또 다른 문제입니다.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구에는 낙태를 매우 지지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불행하고 비극적인 오류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고, 사랑을 보았고, 삶을 보았습니다. 이 세 단어는 요한 서신에서 신실하게 죽어가는 이들과 게으른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요한 서신의 초점을 암시하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버트 야버러 박사님의 요한 서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균형”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번 세션은 2A 세션으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의 신학적 주제들을 다룹니다.